

북야공파종회 제43차 정기총회 성대하게 개최



권영상 회장

북야공파종회(회장 권영상)가 주최하는 “2025년 제43차 정기총회”가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감나무길11(태화동) 북야공파종회 2층에서 고문, 자문, 회장, 부회장, 감사, 종무위원 등 전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권석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 정기총회, 2부 보화강좌 특강을 하였다. 1부는 국민례, 시조묘소 및 파조단소 망배, 상음례, 회장인사, 종무 및 재산현황 보고, 2024년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중점 추진사항, 기타 토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권석순 국장은 총회에 참석한 지역과 내빈을 소개하였다.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강릉, 원주, 청주, 제천, 진천, 구미, 상주, 영주, 영천, 문경, 예천, 의성, 울산, 창원, 합천, 산청, 안동 등 전국에서 참여하였다. 내빈은 권영창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영상 파종회장, 권계승, 권길상, 권기호, 권세목 고문, 권오국 자문위원, 권학창 대종회 제례위원장, 권갑현 대종회 편집위원장, 권오의 대종회 사무국장, 권영현 부산종친회장, 권현주 강릉종친회장, 권기서 창원종친회장, 권녕국 합천종친회장, 권영범 산청종친회장, 권창용 예천문화원장, 권석찬 안동문화원장 등이다. 이날 권영창 대종회 회장이 대청화환을 보내와서 총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내빈 소개가 끝나자 분위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권영태씨(전 안동시청 직원)가 애어로 폰으로 “꿈속의 고향” “그녀” 두 곡을, 하모니카로 “동백 아가씨” “울고 넘는 박달재” 두 곡 등모두 네 곡을 연주,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연주자 권씨는 최근 MBC의 ‘놀라운 세상’ 프로에 출연, 하모니카 연주로 전가를 마음껏 발휘하기도 했다.

북야공파 서주공계 참의공종중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북야공파 서주공계 참의공종중(僕射公派 瑞州公系 參議公宗中) 제17차 정기총회가 4월 12일(토) 10시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가일마을을 병곡 종택(종손 권충만 37世)에서 개최되었다. 가일마을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종중(宗中) 정기총회는 2년마다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종친회 권재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안동을 포함한 경북 지역의 조유의 산불 재난으로 종친회가 미리 예정은 되어 있었지만, 개최 여부를 고심하였으며 이에 따라 애초 계획보다 간소하게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종중의 중훈(宗訓)인 숭조애진(崇祖愛親)과 육영번영(育英繁榮)의 정신을 잘 이어 나야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내빈으로는 참의공종중 외손인 김연종 한국고전번역원장과 동생인 김승중 일송 김동삼선생 기념사업회 학술이사 그리고 우암(友巖) 문집을 국역한 권갑현 대종회 종보사 편집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총회를 축하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종중(宗中)의 역사를 정리한 “참의공 후손 유래” 자료에 대한 설명과 이번에 발행된 “국역國譯 수곡문집樹谷文集(6권 3책)”과 “국역國譯 우암문집友巖文集(8권 4책)”에 대한 소개와 해설이 있었다. “수곡문집”은 1, 2권으로 되어 있으며 안동시 “안동의 역사 인물 문집 100선”의 국역사업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발행하였으며 수곡문집에 대해서는 수곡 공의 8대 손인 권병대 박사가 해설하였다. 그리고 “국역 우암문집”은 우암선조기념사업회에서 발행하였으며 국역은 종보사 편집위원장인 권갑현 전 동양대 교수가 하였으며 이날 역자(譯者)가 직접 문집 소개와 해설까지 해주어서 더 의미가 컸었다.

수곡(樹谷) 권보(權輔 28세, 1709~1778)는 병곡(屏谷) 권구(權渠)의 셋째 아들로써 큰 학자인 부친의 가르침으로 학문이 일찍 성취되었고 경전과 역사서는 물론 제자백가와 천문학과 수학 등에도 두루 통하였다. 독립운동가인 우암(友巖) 권준희(權準禧 33세, 1849~1936)는 수곡 권보의 5세 주손으로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면서 학문과 예의, 문장과 충절, 효성과 민족정신을 모두 겸비한 선비로서 문집에는 시(詩)와 서간(書簡), 제문(祭文), 행장(行狀), 기문(記文), 등 다양한 장르의 글이 수록되어있다.



권영상 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역사를 잇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북야공파의 역사는 800여년으로 우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어 지난 2월 13일 경북 영천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간담회와 유적지 방문을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단체 특 방을 운영, 각 지역에서 족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글을 올려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것”을 당부했다. 권영창 대종회장은 격려사에서 “안동시 서후면 일대를 성역화 사업을 조성하고 있으나 진척이 늦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앞으로 안동권씨 1100년 역사 책자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했다. 권 회장은 또 “능동재사 일대에 신기위해 헌수를 받고 있으며 시조님 영정도 추상적이지만 영정이 필요하다고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행 하겠다”고 했다.

격려사가 끝나자 권석순 국장은 작년 7월 16일 시내 송현동 묵향에서 파종회장 이, 취임식을 갖는 등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일어난 27건의 종무보고를 하고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했다. 이어 권갑현 감사는 2024년도 종무 감사보고를, 권 국장은 2024년도 결산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칙 개정은 제6조 ‘본회 회원을 대표할 대의원은 종무위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등 회칙 총 22조 가운데 15개 조에 관하여 자구수정을 하여 통과시켰다. 권갑현 편집위원장은 올해 7개 종무중점추진사항 가운데 파지발간(派誌發刊) 사업을 중점적으로 역설했다. “안동권씨북야공파지”로 잠정 제목을 붙여 금년 4월에 착수, 오는 2027년 정기총회 전까지 발간 완료할 계획이며 북야

공파 내 11개 분파 별 임향 유래, 자랑스러운 인물, 문화유산 등 각종 자료와 사진을 수록, 800쪽을 예상하고 권당 4만5천 원씩 1천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북야공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책을 만든다는 것이다.

2부는 권갑현 대종회 편집위원장이 보화강좌로 북야공 파조의 제단신도비문 내용에 관하여 특강을 하였다.

비의 두전(頭象)에는 고려상서좌복야상장군 부군신도비(高麗尙書左僕射上將軍府君神道碑), 비문(碑文)은 은청광록대부추밀원부사상서좌복야상장군부군신도비명(銀靑光祿大夫樞密院副使尙書左僕射上將軍府君神道碑銘)이라고 쓰여 있다. 단기 4326년 계유년(癸酉年 1993) 10월 북야공 25세손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 숙 글을 짓고 종후손(宗後孫) 응규(應奎)가 글을 썼다.

비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700여년의 세월이 흐른 부군(府君)의 생애와 설단 이유, 신도비를 세우는 이유, 후손으로서의 사명, 조상들의 위업을 기리고 부군의 문무 겸비와 공적, 기록의 부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새겨 놓았다. 또 후손들의 전국적 분포와 그 근원, 조상 및 후손 계보, 설단 과정의 의미, 후손들의 노력, 서문 마무리로 글을 맺었다.

특강이 끝나자 주회 측은 권유만(權龍巖) 선생의 13세 주손 기백씨가 기증한 타일 1장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총회를 마친 참석자 전원은 시내 운안동 ‘체비원축사간든’으로 이동,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이 점심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정보를 얻기 위해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여 책을 찾아야 했다. 백과사전을 뒤적이고,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책을 한참 동안 찾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검색창에 몇 글자만 입력하면 수천, 수만 개의 결과가 즉시 쏟아진다. 스마트폰 하나로 뉴스, 건강 정보, 금융 정보, 유튜브 강의까지 하루 종일 넘쳐나는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정보가 아니다. 그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며, 나에게 맞게 적용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그것을 제대로 걸러내고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판단은 흐려지며, 시간은 낭비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메타인지(Metacognition)’다.

메타인지는 간단히 말해 ‘생각을 점검하는 생각’, 혹은 ‘자신의 사고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풀 후 “나는 이걸 정말 이해했나?”, “지금 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가?”,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스스로 되묻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다. 즉, 나의 이해 수준, 사고 과정, 판단 기준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이 진짜로 나의 것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능이다.

특히 40~60대 중장년층인 우리 세대에게 메타인지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주로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살아왔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충분히 통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AI, 가상화폐,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개념과 환경이 쉽 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피상적인 정보를 끝이끝대로 받아들이고,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내게 적용 가능한지 성찰하지 않은 채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메타인지는 바로 이러한 ‘인지 착각’을 줄여주는 도구다.

건강 정보를 예로 들어보자. 요즘 인터넷에는 ‘하루한 끼가 건강에 좋다’, ‘오전 공복 유산소가 체지방을 줄인다’, ‘고기방 식단이 뇌 기능에 좋다’ 등 온갖 상반된 주장들이 넘친다. 어떤 이는 저탄고지 식단을 강력 추천하고, 어떤 이는 반드시 탄수화물을 일정량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럴 때 대부분은 “어느 쪽이 더 유명한 전문가인가?” 혹은 “조회수가 많은 쪽이 더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정보가 내 몸에, 내 생활 패턴에 적합한가?”, “나는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신뢰할 만한가?”와 같은 깊은 자기 점검이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곧 메타인진다.

메타인지는 누구나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학력이

정보는 넘치고 시간은 없다

디지털 시대 생존 전략, 메타인지

권원희 (한국평생직업교육원 원장/36세 북야공파)



높거나, 전문직에 있거나, 나이가 젊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고, 연습하고, 의식적으로 나의 사고를 점검하면서 길러지는 능력이다. 방법이 어렵지 않다. 하루 10분, 자기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오늘 어떤 결정이 잘 되었나?”,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가?”, “다음에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때 짧게라도 기록을 남기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생각을 글로 적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사고의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다.

메타인지를 실천하면 삶의 질도 높아진다. 첫째, 정보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뉴스, SNS, 유튜브 콘텐츠 하나만 보고 선불리 판단하지 않고, 한 발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둘째,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무엇이 불필요한 반복인지 스스로 구분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메타인지는 사고 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화가 났을 때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다르게 반응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메타인지의 한 형태다.

디지털 시대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다가온다. 정보는 많고 시간은 없으며, 주의는 분산되고 판단은 어려워진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디지털 환경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더 큰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만 바꾼다면, 사고 습관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메타인지는 단지 ‘더 똑똑해지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힘이자, 나를 지키는 실천의 도구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부족하고, 정보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만의 기준과 사고력을 갖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 우리가 진짜 갖춰야 할 생존 전략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를 걸러내고 활용하는 ‘나만의 생각 정리법’, 바로 메타인진다.

지금 이 글을 다 읽은 당신, “나는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오늘부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메타인지는 이미 시작되었다.

성현의 도를 잇는 안동 권문 후손의 자부심을 가지자

권혁도(좌윤공파, 36世)

휘하의 병력이 신라 최후의 보루가 된 것이다. 이 시기 김행 공은 최소 70세에 가까운 노장이었을 것이다.

고려 천수 13년 (서기 930년) 후삼국시대의 항방을 결정짓는 고창전투가 벌어졌다. 초기에는 후백제군이 우세하였지만 권행 공 휘하의 병력이 고려군을 지원하자 전세가 역전되었다. 결국 후백제는 이 전투에서 8천 명이 전사, 국왕인 견훤조차 목숨만 건져 도망치는 대패를 당하게 되었다. 고창전투의 결과, 경북 북부 및 동해안 일대 110개 성이 일제히 고려에 항복하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고창전투의 포상으로 <삼중대공 삼한백상야부공신 테사(三重大匡 三韓壁上亞父功臣 太師)>에 봉해진 김행공에게는 <능병기달관(能炳幾達灌)>이라는 평과 함께 권씨가 하사되었다. 우리 안동 권문의 탄생이다.

여기서 <정세를 잘 판단하고 기미에 능하고 권도에 통달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한다. <정도를 걷기 위하여 권도를 사용하는 것은 성현이 아니면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공자와 맹자 등 옛 성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다. <현대 정철학의 최고 이념인 성찰성 및 심층의식>인 권도에 통달하였다는 것은 성현의 도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당시 정세를 냉철하게 파악 및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여 고창군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살리는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명민하게 알고 있으셨던 우리 안동 권문의 시조인 태사공 권행 공은 <정도를 위하여 권도를 행한 성현의 도에 도달>한 것이다.

성현의 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능병기달관(能炳幾達灌)>의 권씨가 하사된 것이다. 그 의미대로 전년을 자랑하는 우리 안동 권문에는 수많은 성현의 도를 이룬 분들이 기라성 같이 나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6차 산업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 혹자는 성현의 도가 중요한 것인가 의문을 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현의 도에 도달한 우리 안동 권문의 기개가 혼탁한 이 시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자랑해야 하고 그 기개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금번 영남 지역의 산불로 수많은 종친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럴수록 우리 안동 권문의 후손임을 항상 생각하며 성현의 도를 이룬 시조의 기개를 이어간다면 피해를 빠르게 복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